

# 안양시

삼막골 느티나무제

·  
·  
·



# 삼막골 느티나무제

## 1. 전승지

안양시 석수1동 삼막골 마을

## 2. 유래 및 예설

### 1) 유래

삼막골은 행정구역상 석수1동으로 통일신

라시대의 고승인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 등 삼성인이 삼성산에서 수도하며 유유산업 부근에 제 1막을 짓고 제 2막은 기아의 집 뒤 수도사 부근에 짓고 제 3막은 석수1동 산 10-1번지에 지어 삼막사가 되었다. 한편 삼막사 아래에 민가가 들어서면서 사찰의 명칭을 따서 삼막골이라 칭하게 되었으며 삼막사에서 발원한 물이 삼막골을 따라 관악 전철역 남방 400M지점에서 삼성천과 합류되



는 하천이 바로 삼막천이다.

삼막골 느티나무제는 삼막천의 상류를 향해 우측에(석수1동,1통) 할머니 향나무가 있었고, 좌측(석수 1동 2통)에 할아버지 느티나무가 남아 있다. 수령은 양쪽 모두 500년으로 추측하나 제보자 이공순(78세)씨는 16세 때에 시집을 당시에 500년쯤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한다. 할머니 향나무는 77년 대홍수때 뿌리채 뽑혀 쓰러졌으나 그해 원형대로 현재의 위치인 삼막천 좌측으로 옮겨 심었으며, 은행나무를 옆에 같이 심어놓았다.

삼막골 느티나무제는 제의 명칭에서 보듯이 느티나무(마을수호 신목)의 역할과 마을 주민의 염원이 모여 느티나무제를 지내게 된 것이며, 느티나무의 수령이 500년 이상인 관계로 제의 발생시기도 느티나무가 심겨진 500년경 이후로 추정되고 있다.

## 2) 해 설

### (1) 위치형태

삼막천을 따라 좌측으로 올라가면 삼막상회 옆에 할아버지 당나무가 있고 위로 100M쯤 올라가서 할머니 당나무가 있다. 현재 할아버지 당나무는 도나무(道木)로 지정 되어 있다.

### (2) 제 신

할아버지, 할머니 나무, 당나무, 성황나무

### (3) 제의목적

마을의 평안과 행운, 재액초복

### (4) 제 일

매년 음력 7월 1일과 10월 1일에 지낸다.

## (5) 제 관

보통 제일 보름전에 1~2동 주민중 중, 장년층과 노인이 모여 회의를 통해 2인의 제관을 선출하고 제관집과 당나무에는 금줄을 치고 엄격하게 외인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이 기간중에 제관은 금기사항과 언행, 부정을 가리며 외지의 출입은 물론 부부가 한방에 드는것도 금지한다.

## (6) 제 물

당제 하루전에 당나무(할아버지, 할머니) 아래 조라를 모신다. 청결한 쌀로 찌서 누룩과 함께 작은 옹기에 담아 묻고, 예전에는 소를 잡은적도 있었으나 지금은 돼지머리만 쓰고 있으며 현재는 동네주민 중에서도 50~60%만 참석하며 92년의 경우 평균 2,000원씩 추렴하였으며 더내는 사람도 있다.

## (7) 제의순서

과거에는 오후 1~2시경에 제를 올렸으나 지금은 10시쯤 시작하는데, 할아버지 나무에

### 보 호 수

품	격	도나무
고	유 번 호	5-8
수	종	느티나무
지	정 일 자	82.7.1
수	령	약500년
소	제 지	석수동 134번지
수	고	25M
관	리 자	석수1동장
나	무 둘 레	5M 30CM
기	타	500년 전에 식재하였다하며 매년 음력 7월 1일과 10월 1일 에 제사를 지내고 있음.

먼저 올리고 할머니 나무의 제를 지낸다. 제의 순서는 삼헌(초헌, 아헌, 종헌), 독축, 소지, 음복의 순으로 제를 올리며(지금은 축문이 분실되어 독축은 생략한다) 우물고사는 반드시 지낸다.

고사 우물은 할머니 신목의 경우 할머니나무 맞은편에 있는데 근처에 목장이 생겨 오염이 되어 있으며, 할아버지 나무의 제사용 우물은 송정이라 하여 주민 이종축씨 집 옆에 위치하고 있다. 예전에 우물 근처에 소나무가 많이 있어 송정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양우물 모두 지금은 콘크리트에 뚜껑을 만들어 보관하며 할아버지 우물은 아직도 쓰고 있다.

### 3. 구 성

#### 1) 줄거리

- 제관회의 : 마을의 원로들이 평균, 제일 보름전에 회의를 한후 제관의 선출과 제의방법, 가구당 추렴액 등을 결정한다.
- 추렴패 덕담놀이 : 공동추렴을 위하여 두레패가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성주굿, 우물굿, 조왕굿과 우마의 축원을 한다.
- 당나무 옷입히기 : 당나무에 오색천과 금줄을 입히고 터주가리를 세우며 주민에게 제의 시작과 금기사항을 지키게 한다.
- 우물고사 : 먼저 우물고사를 지낸다.
- 느티나무제 : 할아버지나무와 할머니 나무의 순서대로 제를 올리며 할아버지 나무에 첫잔이 올려진후에 할머니 나무제를 지낸다.
- 대동놀이 : 제가 끝난후 마을 주민은 음복을 하며 무사히 제가 끝났음을 기뻐하고, 동네마당에서 두레패의 농악겨루기와

기놀이 등이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 진다.

- 고증감수  
임동권(민속학자)
- 고 증  
이한기(향토사학자)
- 지 도  
김병훈, 김지석

출 연 자 명 단	
기	전병구, 오현미, 이철희, 이정우, 오재춘, 최재훈, 이용일, 오순미, 박연경, 김혜영, 김지선, 박형선, 이원희, 박환영
식	전순택, 이지영, 김재길, 김혜연
장	박동민, 손태명, 하준호, 양재성, 이범원, 김종원
고	박문숙, 윤교희, 이혜정, 안희자, 김선옥, 김혜숙, 이상희, 최화선, 권효영, 이경아, 김은정, 윤지영, 배수희
호	착한근
적	이선미, 고길석, 조경희, 박정수, 강은주, 조현미, 진용주, 최인신, 이경미, 오인식, 김선영, 박근정, 한재현
소	최영열, 박철용, 이진국, 이광열, 최순덕, 이경화, 조병찬, 배상덕, 이경희, 김중선, 김대한, 이혁기, 배장수, 박원준
제	은남준, 유영준, 정홍진, 이윤학, 강백순, 김진천
관	
동	김갑중 외 49명
네	
사	
람	

